

LG화학, 사업가형 인재육성 강화

LG화학은 회사의 차세대 사업을 이끌어갈 사업가형 인재 육성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고 10월13일 발표했다. 이에 따라 LG화학은 최근 경기 오산의 리더십 센터(Leadership Center)에서 국내와 중국, 인디아, 독일, 미국 등 해외지사에서 선발한 핵심인재 23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(Global Business Leader) 과정을 열었다.

프로그램은 미국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 캐서린 해리건 교수의 강의와 사례연구를 비롯해 다양한 실습 및 토론 등으로 구성됐으며, 참석자들은 영어로 진행된 과정을 통해 글로벌 사업경험과 역량, 리더십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.

아울러 LG화학은 생산과 영업, 관리, 연구 등의 분야에서 2가지 이상의 사업부 경험을 할 수 있는 실무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8/10/13>